

세계적 양산지의 환상적인 골프장으로 당신을 초대합니다.

함평 다이내스티 컨트리 클럽

인터넷회원 주중그림피 할인

- 5일전 부킹 1만원 할인
- 3일전 부킹 2만원 할인
- 1일전 부킹 3만원 할인

예약 : www.hpdynasty.co.kr 061)320-7700, 7714

■ 최경주 PGA AT&T 내셔널 우승하기까지

17번홀 환상의 벙커샷 버디 '탱크의 저력'

15번홀 1타차 단독선두로 나서 경기 후 우즈 "BIG GUY" 극찬

전날까지 선두였던 에블라가 7번홀까지 더블보기 1개, 보기 4개를 범해 무너졌고 2타차 2위로 마지막 라운드를 맞은 최경주는 4번홀(파4)과 8번홀(파4)에서 버디를 잡아내 우승 가능성은 더욱 높아지는 듯 했다.

하지만 3라운드까지 최경주에 1타 뒤진 3위 스티브 스트리커(미국)가 전반에 버디 4개, 보기 1개로 3타를 줄여 새로운 경쟁자로 떠올랐다.

전반 9개홀까지는 중간 합계 9언더파를 친 최경주와 스트리커의 접전.

후반들어 스트리커가 11번홀(파4)에서 1타를 잃어 단독 선두 탈환의 기회를 잡았던 최경주는 10번홀(파3)에서 1.8m 짜리 파퍼트를 놓쳤고 11번홀에서는 두 번째 샷을 그린 왼쪽 카트 도로 옆으로 보낸 뒤 2퍼트를 하면서 다시 1타를 잃어 2위로 떨어졌다.

12번홀(파4)에서 7.6m짜리 버디 퍼트를 성공시켜 힘을 낸 최경주는 스트리커가 14번홀(파4)에서 보기를 범한 사이 8언더파로 1타차 단독 선두로 올라서기도 했지만 13번홀(파3) 보기로 다시 공동선두로 내려앉았다.

우승컵의 향방이 서서히 가려지기 시작한 것은 최경주가 14번홀에서 파세이브에 성공하면서부터였다. 최경주가 2온 2퍼트로 타수를 지킨 반면 스트리커는 15번홀(파4)에서도 다시 보기를 범했다. 최경주의 1타차 단독 선두.

1타차가 안심이 되지 않았던지 최경주는 15번홀(파4)에서 우승에 췌기를 박았다. 버디 2개, 파 1개를 기록하며 자신있게 샷을 날렸던 최경주는 두 번째 샷을 핀 앞쪽 3.6m에 떨어뜨린 뒤 버디 퍼트를 성공시켜 스트리커와 격차를 2타로 벌리며 우승을 향한 마무리에 들어갔다.

'Go, Tank'라는 깃발을 흔들며 응원하던 현지 교민들이 더 큰 환호성을 터뜨린 것은 다음 홀이었다.

최경주는 17번홀(파4)에서 두 번째 샷을 그린 못 미친 벙커에 빠뜨려 잠시 긴장감이 감돌았다.

자칫 보기라도 범할 경우 1타 차이로 줄어들면서 마지막 18번 홀에서 부담이 커질 판이었다.

그러나 최경주는 환상적인 벙커샷으로 공을 홀컵에 집어넣어 버디를 만든 뒤 환호하는 갤러리들에게 모자를 벗어 일찌감치 우승 인사를 전했다. 보기 위기를 단숨에 버디로 바꿔 갤러리들의 갈채를 받았다.

오려려 2위와 3타 차이로 앞선 가운데 마지막 홀을 맞아 사실상 개인 통산 6승제를 확정짓는 순간이었다.

대회 주최자인 '골프황제' 타이거 우즈(미국)가 직접 트로피를 건네주며 최경주에게 "빅 가이(Big guy)"라고 했을 만큼 이제는 자타가 인정하는 세계 정상급 선수가 된 셈이다.

최경주는 AFP통신과 인터뷰에서 "오늘 우승이 남과 북의 한국인들에게 기쁨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더욱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외신들이 4라운드 내내 '고, 탱크(Go, Tank)'라는



최경주가 9일 미국 메릴랜드주 베데스다 콩그레스셔널골프장에서 열린 PGA투어 AT&T 내셔널 최종라운드 17번홀에서 벙커샷이 홀에 들어가며 버디로 이어지자 두 손을 들어 환호하고 있다. /AFP=연합뉴스

응원 문구를 들고 최경주에게 힘을 실어준 교포들의 성원을 빼놓지 않았을 정도였다.

AP통신은 "최경주가 5월 말에 잭 니클러스가 주최한 메모리얼 토너먼트를 우승한 데 이어 이번에는 우

즈가 호스트로 나선 대회를 우승했다"면서 "이제 아시아인 최초로 메이저대회 우승을 노릴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

대회 주최자였던 우즈는 마지막 날 이븐파에 그쳐

함께 2언더파 278타로 공동 6위에 올라 체면치레를 했고 재미교포 엔서니 김(22·나이키골프)은 2오버파 282타를 쳐 공동 25위로 대회를 마쳤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최경주 역대 PGA 우승기록

최경주 (최수현)

출생일: 1970년 05월 09일
출생지: 전남 완도
신장/체중: 172cm / 69kg
취미: 영화
학력: 광주대 졸업

PGA 우승경력

- 2002년 미국프로골프(PGA) 챔피언십
- 2002년 PGA 챔피언십
- 2006년 PGA 챔피언십
- 2006년 PGA 투어 유러피안컵
- 2007년 8월 PGA 투어 AT&T 내셔널
- 2007년 7월 PGA 투어 AT&T 내셔널

■ 새로 바꾼 '퍼팅 그림'

두툼한 사각막대형 정교한 퍼팅에 한몫

"퍼팅그림이 너무 크고 두꺼워 민망했죠. 공식 대회에서는 처음 사용했는데 기대하지 못했던 우승을 가져올 줄이야..."

골프황제 타이거 우즈(미국)가 개최한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AT&T 내셔널에서 우승하며 시즌 상금 300만 달러를 돌파한 최경주(37·나이키골프)의 우승 원동력은 정교한 퍼팅이었다.

최경주는 9일 막을 내린 AT&T 내셔널 대회를 치르는 동안 300야드가 넘는 드라이브샷을 날리고 페어웨이 안착률도 73.2%를 기록했다.

그린 적중률도 75%에 이르렀지만 우승트로피를 안겨준 것은 퍼팅이었다.

이번 대회에서 최경주는 라운드당 평균 28.8차례 퍼트를 사용했고 그린 적중시 퍼트수는 1.685개로 출전 선수 중 2위.

특히 스티브 스트리커(미국)와 접전을 펼치던 후반 최경주가 성공시킨 안정된 파 퍼트와 버디 퍼트는 스트리커를 스스로 무너지게 만들기에 충분했다.

두툼한 사각막대형 그림으로 쌓인 퍼터를 들고 나온 최경주는 자칫하면 우승권에서 멀어질 뻔했던 12번홀(파4)에서 7.6m 짜리 버디 퍼트를 홀에 떨어뜨리고 15번홀(파4)에서도 쉽지 않은 내리막 버디 퍼트를 성공시키며 우승을 확실할 수 있었다.

작년 7월 브리티시오픈 때는 일명 '집게발 그림'으로 퍼터를 잡아 눈길을 끌기도 했던 최경주는 완벽한 경기를 위해서라면 끊임없이 새로운 시도를 해왔다.

작년에 TV 광고를 보고 '슈퍼 스트로크'사가 만든 새로운 그림을 구입했다는 최경주는 "공식 대회에는 갖고 나오지 않고 집에서 연습할 때만 사용했다. 이번 대회를 앞두고 잘 맞는 것 같아 들고 나왔는데 만족할 만한 성과를 얻었다"고 말했다.

두꺼운 그림이 손목의 움직임에 줄여줘 안정된 퍼트를 할 수 있다는 것이 제작사가 홈페이지에 올려놓은 이 제품의 장점.

5주전 메모리얼 토너먼트에서 '골프의 살아있는 전설' 잭 니클러스(미국)에게 우승트로피를 받았던 최경주는 이번에는 우즈로부터 우승트로피를 받아 기쁨이 더 컸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 최경주 인터뷰

“탱크처럼 앞만보고 전진하겠다”



최경주가 9일 AT&T 내셔널대회에서 우승한 뒤 트로피를 들고 활짝 웃고 있다.

"우승트로피 여기 있어요. 빅 가이(big guy)."

'한국산 탱크' 최경주(37·나이키골프)가 9일 골프황제 타이거 우즈(미국)로부터 미국프로골프(AT&T) 투어 AT&T 내셔널에서 우승트로피를 건네 받고 국회의사당 모형으로 제작된 은빛 트로피에 입을 맞췄다. 최경주는 "내 생애 최고의 우승컵이다. 뭐라고 표현할 말이 생각나지 않는다"며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5주전 메모리얼 토너먼트에서 자신의 우승이었던 잭 니클러스로부터 우승컵을 받은 데 이어 이번에는 현역 최고의 골퍼 우즈로부터 우승컵을 받는 최고의 날을 보냈다.

교포들의 열렬한 응원 속에 우승한 최경주는 "메모리얼 토너먼트와 AT&T 내셔널 모두 의미있는 우승이었지만 교포들의 응원 덕에 우승 순간이 더욱 짜릿했다."고 말했다.

다음은 최경주와 전화 인터뷰.

-5주전 우승과 오늘 우승 중 어느 것이 더 소중한가

▲골프계의 두 영웅(니클러스와 우즈)으로부터 받은 우승트로피라 비교할 수는 없다. 미국에서 뛰는 동안 오늘처럼 현지 교민들이 많이 응원하러 나와준 적이 없다. 생각하지도 못한 너무 짜릿한 우승이었다.

-오늘 경기는 어떠했나

▲어제 초반에는 좋지 않았는데 후반부터 연속 버디를 잡아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었다. 다만 어제 1시간 정도 밖에 연습을 하지 못해 걱정이 됐는데 오늘은 드라이브샷도 멀리 나가고 퍼트도 잘 들어갔다.

-퍼터 그림이 특이하게 보였는데

▲작년에 TV광고를 보고 구입했는데 너무 두껍고 커서 공식 대회에서 사용하지 않았다. 이번 대회를 앞두고 집에서 연습하다가 갖고 나

왔는데 기대 이상으로 잘 맞았다.

-시상식에서 우즈와 어떤 대화를 나눴나

▲여러 차례 대회에서 우즈와 만나면서 이제 친구처럼 지낸다. 우즈가 좋은 선수가 우승해서 기쁘다고 말했다. 좋은 대회에서 우승하게 돼 자랑스럽다고 답했다.

-앞으로 목표는

▲아시아 선수 최초의 메이저대회 우승이다. 지금까지처럼 뒤를 돌아보지 않고 탱크처럼 앞만 보고 가겠다. 처음 미국에 왔을 때 모든 것이 낯설었지만 내 자신과 하늘을 믿고 어려움을 극복해 나왔다.

-다음 대회 일정은

▲이번 주에 열리는 대회는 쉬고 12일(현지시간) 브리티시오픈이 열리는 스코틀랜드 영거스로 떠난다. 또 하나의 목표인 메이저대회 우승에 도전하겠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최경주가 AT&T 내셔널 대회에서 처음으로 사용한 퍼터의 두툼한 사각막대형 그림이 눈길을 끌고 있다. /AP=연합뉴스